

박물관의 공간변화에 따른 전이설계 사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ition planning case of transformation in Museum

도 규 환* 최 의 선**
Do, Kyu-Hwan Choi, Eui-Sun

Abstract

The architectural space is the involuntary place where man lives and experiences, and as a 3 dimensional space through the continuous experience with the concept of 4th dimension of time, it provides the observers with the dramatic space imagery. These kinds of space experiences are experienced mentally and perceptively through the physical elements of inner and outer space of Museum, and this space imagery is created here by all the space composing elements of Museum. These space experiences are caused by the changing processes of the space characteristics, and the observers perceive the changes in space characteristics. These changing processes of inner and outer space, space versus space, and unit space, which are perceived by the observer, could be called as 'the transition' and the changes of the space characteristics as 'the transition characteristics'.

키워드 : 전이, 체험, 지각요소

keywords : transition, experience, perceive, the space composing elements

I. 서론

현대의 건축공간은 과거와 달리 건축물 이용자의 동선과 기능에 따른 공간의 접합, 분절, 삭제 등의 방법과 건축의 구성요소의 재구성등에서 다양한 공간체험을 보여준다.

이는 공간성의 변화과정에서 관찰자가 느끼는 것이라 보며, 주된 요소로서 전이성을 들 수 있다. 전이성은 건축물 내외부공간에서 물리적, 심리적인자로 표현됨으로 모든 공간안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외부공간에서 전이의 물리적 인자, 심리적 인자가 박물관에 사용된 전이수법은 무엇이며, 같은 용도의 서로 다른 건축물을 비교분석하여 전이성과 공간구성요소의 관계를 파악하여 공간의 전이를 일으키는 주된 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과 설계의 예를 보여주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며, 또한 연구의 방법은 제2장에서 전이의 이론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건축가들이 본인이 설계

한 건축물에서 공간설계방법을 어떠한 인식과 방법에 의하여 설계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고찰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각각의 공간설계방법론에서 더욱 중심적인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전이공간과 전이성

* 정회원, 서일대학 건축과 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전 서일대학 건축과 강사, 공학석사

2-1. 전이

전이란 시간속의 움직임이 연속되는 생활에서 또한 그 생활의 변화를 수용하는 건축공간에서 「변화과정」이 주 요사항이고, 이 변화과정의 자연스러운 연결기법이라 표현할 수 있으며,³⁾ 건축적 의미에서는 두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이질적 요소의 변화에 따라 이질감을 완화시키고 갑작스러운 상황의 전환을 조절하고 완충 또는 매개하는 기능의 공간이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공간을 전이공간⁴⁾이라 한다.

2-2. 전이공간

1. 전이공간의 기능

전이공간은 특정한 기능과 성격을 가진 공간과 공간 사이에 존재하여 상이한 공간의 기능과 성격을 완화시킨다. 공간의 상호침투와 연속성을 이끌어 주는 여과적, 매개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을 말하며 우리의 주거공간에서는 Negative Space와 Positive Space사이에 존재한다.

또한 우리가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움직일 때에는 알게 모르게 어떤 종류든 완충공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곳에서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쉽터로서, 약속장소로서, 사색의 장소로 형성되는 적극적인 전이공

3) 한국백과사전, 제32권, 동아출판사, 1990. p 21.

4) 김억중, 대한 건축학회지 '건축', 1993. 5, P 21.

간이 된다.⁵⁾

대체로 전이공간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바뀐다. 익명의 공간에서 보다 친밀한 지명의 공간으로 바뀌거나, 역으로 목적과 기능이 뚜렷한 건축적 공간에서 다양한 분위기가 있는 공간으로서 바뀌는 것이다. 이공간은 우리 생활에 어떤 리듬을 주는 공간이며, 한번쯤은 머물러서 무엇인가 더듬어 보는 공간이다. 즉 전이공간은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양쪽의 영역이 소유하지 못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능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전이영역 내부의 작은공간과 외부의 큰 도시공간 사이에 있는 하나의 연결체로서 지각된다. 그래서 사적-반사적-반공적-공적공간으로 기능적 전이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사적-반사적-사적-반사적공간과 사적-공적 공간의 기능적인 공간 영역을 매개로 하여 그대로 시각적 전이로서도 전달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은밀한 내부공간에서 개방적인 외부 공간으로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의도적으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도록 연출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연속적 변화는 매우 부드럽고, 체계적 단계적으로 구성되어야 공간의 Sequence가 연결감이 있고, 사람들도 그러한 체계 속에서 안도감과 쾌감을 느낀다.

따라서 전이공간의 기능을 보면 ① 완충기능, ② 한정기능, ③ 연계기능, ④ 다양성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⁶⁾

따라서 전이공간은 그 자체에 연계성과 연쇄성의 의미를 함유한다고 볼 수 있어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인 시간성의 특성을 가진다. 이것은 통로와 장소의 그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운율의 전개, 증감의 연속성, 우연성, 대칭성과 비대칭성, 수축성과 팽창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2. 전이공간의 요소

건물의 계획을 결정하는 보호활동의 필요사항은 필요한 물리적 공간, 환경조건, 다른 활동과의 관계, 건물구조에 끼치는 영향 등 4개의 표제로 그룹되어진다. 여기서 건축적 공간, 환경조건, 다른 활동과의 관계 등은 전이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실의 안전성과 분류된 공간의 환경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간영역사이에 분리, 차단, 접근 및 적절한 전이의 역할을 하는 물리적 요소가 필요하다. 주택 평면상 각 영역의 적절한 분리와 그 사이에 알맞는 담, 벽이 계획되어 있어서 개인 및 집단이 그 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각 영역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고 영역사이의

전이이 능률적이 되는 것은 공간조직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각 영역을 연결하는 단순한 장벽과 분리 장치물(전이절점)은 자체가 하나의 영역 및 활동지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되는 영역 및 동적인 지점은 물리적, 심리적인 면에서 전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이공간의 요소로는 전이활동, 전이차원, 전이절점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전이공간이 그 자체의 공간형태, 공간기능에 의해서 전이되는 과정, 전이수행능력을 전이차원이라 하며, 건축내외부 공간계획에 있어서, 전이차원은 공간계층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전이의 대상이 되는 영역의 범주를 의미한다. 전이차원의 측정은 전이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간활동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인간활동은 생물학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활동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인간행태를 이룬다. 이러한 활동은 활동주체, 활동행위자, 활동종류에 따라 특정지워진다.

둘째로 전이활동이 일어나는 인접한 영역의 경계를 전이점이라 하며 통로상의 절점들이 된다. 그 경계는 반드시 분명히 구분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물의 면과 통로의 선이 만나는 점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단위공간으로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이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2-3. 전이성

하나의 단일공간은 2차원의 면적요소인 바닥과 벽 그리고 천장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 각 요소는 자유로운 형태표현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데 실제로 공간의 힘을 느끼는 곳은 바로 이 요소들사이의 무형적 실체인 공간 그 자체라 할 수 있다.⁷⁾

이 건축적 공간은 목적하는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 통과하는 과정, 공간인 경우 그 이동이 진해되도록 예상되는 통로에 의해 방향성이 도입된다. 이 방향성에 건축공간을 적극화시키면 입체적인 유동성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동선이라 할 수 있는데 공간에서 동선의 인식은 공간내부에 존재하는 힘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각 단위공간들은 그 속에 내재하는 힘의 흐름에 따라 각각 전이성을 지니고 있고 각각 공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전이적인 공간의 흐름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와 같이 전이성은 힘의 이동으로 야기되는 공간성의 인자의 문제로 요약되고 전이성이 발생하는 공간형태는 경사와 곡선, 수직과 수평, 대비와 중첩, 방향과 연속, 개방과 폐쇄의 방법으로 형성되고 있다.⁸⁾

5) Francis D. K Ching, 전감 역, 건축의 형태와 공간, 국제출판공사, 1985.

6) 정무웅, 한국전통건축 외부공간의 계층적질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1985.

7) Rudolf Arnheim, The Dynamic of Architectural form, p 225.

8) Amos Ih Tiao Chang, Intangible Contert in Archi-

1. 전이성의 물리적 인자

전이성의 성립에 있어서는 공간과 공간간의 경계구조의 상호연관성속에서 작용하므로 전이공간 형성요소에 의해 공간간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따라 기준으로 설정하며, 벽, 계단, 기둥, 보, 바닥, 빛, 문,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⁹⁾

2. 전이성의 심리적 인자

심리적 인자로서는 ① 상징성 ② 위계성 ③ 둘러싸임(위요성) ④ 방향성 ⑤ 연속성 ⑥ 겹침(중첩성) ⑦ 대비성 ⑧ 개방과 폐쇄성 ⑨ 유기성 등이 있다.

III. 박물관의 공간변화에 따른 전이성 구성

3-1. 사례건물 선정배경 및 분석방법

뮤지엄은 미술관/박물관의 합성어라고 한다. 서양의 뮤지엄은 문화적 집합체라고 할 수 있듯이 다양한 성격을 가진 뮤지엄이 존재한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공간체계를 가지면서 각 공간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공간적인 시나리오가 구성되고 있다.

뮤지엄의 특성을 살펴보면 세가지 정도의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박물관의 중요한 것은 박물관 자체의 주제를 가져야 한다. 전시내용이 기능과 구조를 가진 합리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관람자의 양적인 크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 주제에 합당한 전시품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공간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연속적인 공간의 패턴은 전시주제를 상실할지 모른다. 연속적인 리듬을 몇개의 단계로 나누어 전시품을 연결한다면 공간에 따른 전시품의 주제와 대조를 이루면서 관람자의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셋째는 전통적인 공간의 구성법은 몇 단계의 공간을 거치고, 건물의 집합....여러가지 전통건축의 현상들의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관/박물관에 적용하는 공간 사례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공간으로 부족함이 보인다. 반면에 자연적인 구조를 이용하고 여러개의 건물을 집합시켜 공간적인 위계와 함께 공간을 연속적으로 이끌어 주는 수법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간을 형성해 가는 방법에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뮤지엄 공간에서 공간이 전이되어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공간은 전이공간이라 하며 갑작스러운 상황, 전환

되는 현상을 전이성이라 불리운다.

우리가 건축에서 보이는 이같은 현상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위의 둘째 사항에서 언급했지만 공간의 연결, 분할되는 수법에서 나타난 전이요소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전이성이 나타나야 할 공간에 전혀 뜻밖의 공간의 형성은 전체적 공간 구성의 위계가 허물어진다.

다음사항에는 국내 박물관/미술관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공간의 처리방법은 아래의 8가지의 주제에 따라 21가지의 요소로 분류되어진 공간, 구성, 기능, 동선, 분위기, 공간성, 이미지, 내부공간·내외부공간·진입·질서·벽·축·회랑·흐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1) 공간은 격자형 공간, 구심형 공간, 군집형 공간, 방사형 공간, 선형공간등으로 분류되어진다.

(2) 공간의 구성은 가람배치, 가벽구성, 가변성, 분절과 휴식의 리듬, 상호 유기적 구성, 천장을 통해 빛 도입, 원형 천장, 레벨차 등으로 분류되어진다.

(3) 공간의 기능은 개별적 공간의 연계, 건물사이로 열려진 공간, 다양성, 다양한레벨, 대기성 공간, 동선 분리, 장애자와 노약자 고려로서 나누어진다.

(4) 공간의 동선은 관람자의 유도, 램프를 이용, 보와 분리, 수직과 수평의 조닝 교차없는 동선체계, 중정을 도입, 강제순환체계, 시계방향등으로 분류되어진다.

(5) 공간의 분위기는 건물과 깊이감을 둠, 독립성, 보이지 않는 공간, 심연성, 자연채광의 도입, 인공조명, 융통성 있는 공간, 물의 요소 도입, 일상적인 분위기, 중간 영역에 빛의 도입, 1, 2층이 트인 공간등으로 분류되어진다.

(6) 공간의 공간성은 내향적, 개방감, 부영역은 상징적, 시각적 공간적 연출, 극적공간, 연계성 확보, 대비성, 연속성, 연속의 공간과 쉼 구성으로 나누어진다.

(7) 공간의 이미지는 시와 생, 생과 속, 과거와 현재, 긴장과 이완,진입고조 방식, 비일상적인 공간을 체험, 상징적 내부인식등의 주제를 반복한다.

(8) 공간의 내부공간, 내외부공간, 진입, 질서, 벽, 축, 회랑, 흐름으로 나누어 진다.

따라서 국내의 뮤지엄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전이적 공간 수법을 가지고 현재에 이르르면서 다양한 공간 변화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사회·환경적 요소

1) 사회적 요소 분석

196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의 건축적 상황은 전재복구에서 크게 신장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당시에 사회재건이라는 소구 아래 주거용건축과 생산용건축을 우선하여야 사정에 연유하다. 박물관뿐만 아니라 문화건축에 대한 투자의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히 공공건축으로서 문화 건축은 투자의 우선순위서 크게 뒤질 수 밖에

tect Form, 윤장섭 역,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기문당, 1986. p 51.
9) 도규환, 이제현, 박물관의 내·외부공간 변화를 통한 전이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5호, 1996. 5, p 25.

없었다.

1970년대 이시기에 이르면서 뮤지엄 건축은 72년 “문화예술진흥법” (법률제 2337호) 이 제정한 바 이 법률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문예진흥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예술 운동을 장려 보호 육성할 의무를 조항으로 설정하였다. 또 “문예예술진흥위원회의 “와” 문화예술진흥원 “을 설립토록 하고 진흥기금의 확보를 위해 공연장을 통한 모금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시대적 상황아래 건축물을 지역적인 유물을 전시할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박물관의 중흥기라 할 수 있으며 역사성, 전통성, 현대성을 가미한 다양한 문화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 문화정책은 제2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0. 26 사태와 제5공화국 출범으로 무산되고 제 5공화국의 문화정책으로 연결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 8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국정지표에 “문화창달” 이 등장하였으며, 5-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문화부문을 선정하였다.¹⁰⁾

문화시설로서는 대형문화건축물을 건립하였다. 이 시기에 지은 건축물들은 70년대와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역사성에 바탕을 두면서 전통성 재현, 현대성을 가미한 건축물이었다. 반면에 향토적이며 사조와 이념을 갖춰진 박물관/미술관이 나타나고 70년대 보다 다양한 전시패턴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필요하게 되고 신축되어지는 건축건축물이 70년대의 단순기능으로부터 80년대로 추가되었고 발굴되어진 다양한 유물을 필요로 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다양한 뮤지엄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소규모의 미술관 기념관도 대형박물관, 미술관 건축에 힘입어 소규모의 시설들도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전개되었다.

2) 환경적요소의 분석

뮤지엄을 환경적 측면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과거, 현재나 그다지 변한 것은 없다. 단지 60년대 부터 시작하여 80년대말까지 전통적인 특징이며 자연적인 지형, 자연수림을 최대한으로 이용, 자연과의 연계, 랜드마크적이며 풍토성을 강조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다.

그중 대표적으로 1970년대 국립부여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등이 있는데 전자는 “부여가 백제의 중심지라는 단순한 논리와 건축부지가 전천왕 사지의 인접거리는 까로운 입지조건에 대한 건축적 해결을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며 지형이 지닌 포용적 이미지” 후자는 국립공주박물관은 언덕위 공원에 위치하며 공주시내가 바라다 보이는 경관을 갖고 주변에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건

물이다.

1980년대는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독립기념관, 제주자연사박물관 등이 있다. 여기서도 특징적으로 6-7개 정도의 환경적 요소를 중시하면서 한국지형에 맞는 건축물을 시도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자연지형의 산지로서 지형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박물관의 전시기능으로 유도하고 중심지역에서 좀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국립진주박물관의 경우 진주시내 진주성안에 위치하고, 자연의 지형에 친밀하게 밀착되면서 남강이 앞으로 흐르고 있는 자연적 지형이다. 그리고 독립기념관과 같은 경우 주변산세의 향과 내부기능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하였고 제주자연사박물관의 경우는 북방문화와 남방문화가 교차하는 특별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뮤지엄은 과거와 현재의 시각의 차이에는 큰 변화가 없고 단지 주거지역, 교통, 가로경관 등 몇가지 요소만 추가되면서 도심지내에서 건설되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서는 경기도립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신), 해강도자미술관, 환기미술관 등이 있다. 경기도립박물관의 경우는 이전시대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이외에 여기서는 완만한 경사지로 경부고속도로와 복서축 비교적 교통량이 많고 인접한 도로를 가지고 있는 대지이다. 환기미술관의 경우는 작은 미술관이지만 자연적 지형(계곡의 흐름, 산세, 고저차, 레벨)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였다.

IV. 박물관 전이공간의 심리적 요소 분석

뮤지엄의 전이요소를 가지고 정리 종합하여 11가지로 분류하여 전이요소가 각 시대별로 뮤지엄에서 어떤 요소로서 구성하고 있으며 물리적 요소가 쓰이는 방법과 위치에 따라 공간적 전이요소가 다채롭게 쓰여지고 있다. 물리적 요소는 유리벽, 계단, 기둥, 단, 바닥, 고창, 천창, 마당, 램프등이라 하고 이러한 물리적 요소에 따라 전이성의 심리적 측면이 공간내에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전이성의 심리적 측면은 2장에서 다룬 요소를 가지고 전이성의 특성을 분류하였다.

내·외부 공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심리적 요소로서 상징성, 위계성, 개방성, 영역성, 장소성, 연속성, 위요성, 중첩성, 대비성, 유기성, 방향성, 침투와 관입 등의 순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상징성이 나타나는 것은 뮤지엄의 기념성 측면과 상징화되기 위한 요구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10)서상우, 현대의 박물관 건축의 계획학적 연구에 관한 연구 홍익대,박사, 1988,

의 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공	격지형 구성																																						
	구상형공간	●		●					●							●		●					●											●					
	군집형공간					●	●																	●															
	방사형 공간																																		●				
	상	선형공간																																					
		구	가람배치																																				
			가벽구성																																				
			가면성																																				
			분절과 휴식의 리듬																																				
			상호유기적 구성																																				
천장을 통해 빛 도입																																							
원형 천정																																							
좌우대칭																																							
레벨차																																							
블트로 구성																																							
능	개별적 공간이 연계																																						
	건물사이로 열려진 공간																																						
	다양성																																						
	다양한 레벨																																						
	대기성 공간																																						
	동선분리																																						
	장애자와 노약자 고려	●	●																																				
	선	관람차 유도																																					
		템플릿 이용																																					
		보차 분리																																					
수평과 수직의 조닝		●																																					
교차없는 동선체계																																							
중정을 도입		●																																					
강제순환 체계																																							
시계방향																																							
간		건물의 깊이감을 줌																																					
		독립성																																					
	보이지 않는 공간																																						
	심연성																																						
	자연채광의 도입																																						
	인공조명(간접조명)																																						
	유동성 있는 공간																																						
	물의 요소 도입																																						
	일상적인 분위기																																						
	중간영역에 빛의 도입																																						
공	1,2층이 트인공간	●																																					
	중정을 이용 (썬큰, 아트리움)																																						
	플라이트																																						
	통일된 유기체로서																																						
	성	내향적																																					
		개방감																																					
		부영역은 상징적																																					
		로undle에 빛 떨어지는																																					
		극적 공간																																					
		시각적 공간적 역할	●																																				
연계성 확보																																							
대비성																																							
연속성																																							
연속의 공간과 커튼구성																																							
이	위계적 공간구성																																						
	폐쇄감																																						
	미	시와 생, 성과 속, 과거와 현재등의 주제틀반복																																					
		간장과 이완																																					
		동양적 세계관을 보행자																																					
		진입고조함시																																					
		비일상적인 경험을 체험																																					
		사유할 수 있는 공간																																					
		상념적 내부인식																																					
		투시되는 가상의 공간																																					
역사적 암시적 표현																																							
외부이미지가 연속적으로 구성																																							
일상적인 도시환경																																							

1970년대에는 부산직할시립박물관 경사진 대지조건을 3단계로 점진적인 상승을 유도하는 전시공간과 내부에서는 진입구에 집결되는 대전시공간은 중 2층 형식의 일부가 전시공간으로 연결되어 입체적, 위계적 전시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독립기념관에서 대표적으로 발생되며 국립현대미술관의 외부에 대지의 능선을 그대로 사용하며 몇개의 단을 입구 앞에 만들

어 정원으로 하였고 이 정원들은 담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단은 능선의 연속으로 보았으며 본건물은 거대한 기단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공간의 위계를 느끼며 내부공간에서 전시공간의 전시위계가 조정되는 체계이고 현재는 1층 기획실, 2, 3층은상설전시실이 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바닥높이가 다양하게 조구성이다. 내부에서 외부로 진입하기 위한 계단은 공간의 위계를 만들고 있다.

3. 영역성

한개인이거나 집단에 의하여 명확한 방어적 수단이나 축은 어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어느정도 배타적으로 점유되어진 공간을 말한다. 영역은 구역과 구역 사이의 경계요소로 작용한다. 영역을 어떤 특별한 인간활동에 의하여 한정되기도 하고 사회적 조건에 의해 영역을 결정하기도 한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영역성은 60년대 중앙박물관으로 경복궁이라는 영역내에 계속 존재해 왔고 박물관의 중정의 내부공간의 한정과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70년대에 국립부여박물관, 시립박물관은 외부공간의 단과 수목, 내부공간의 기둥들에 의해 공간을 한정시킬 수 있다.

80년대에서는 공간의 영역을 내부공간에서보다는 외부공간에서 매스와 매스사이의 공간의 장에서 영역성을 느낄 수 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내·외부의 다양한 공간패턴에 의해 영역성을 느낄 수 있다. 환기미술관, 대구박물관에서 공간의 다양한 변화에 의해 담, 마당의 축이 변화하면서 영역성을 체험할 수 있다.

4. 연속성

연속 자체라는 말은 그 건물을 향해서 건물을 통과하고 체험함에 따라 우리에게 부여되는 경험의 연속체이다. 공간에서 움직일 때 마다 통과하면서 시간성을 느끼면서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이동할 때 위치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게 된다.

60, 70년대 말까지 공간의 전이요소에서 연속성은 역사적 요소보다는 변형에 의한 지붕, 열주분야를 형태화하였고, 심리적 형태가 주는 내·외부공간의 연상적 효과를 열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건축물에서 부여국립박물관, 한국문예진흥원미술관등은 느낄 수 있는 부여국립박물관은 지붕의 연속적인 선과 진입공간을 들어갔을때외부의 공간이 내부의 중정까지 연속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한국문예진흥원미술관의 경우 외부의 흐름이 연속되며 중심부의 오픈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1층 부분의 내·외부 개방성 및 연속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이적 공간이다.

80년대 들어오면서 공간의 규모도 커지고 외부공간의 규모도 커지면서 외부공간의 연속적인 체험이 대지 전체에서 경험될 수 있다. 외부공간의 연속적인 체험이 내부공간에 연장되면서 통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바닥의 변화, 고차의 수평적 펼침 내부공간에서의 기둥의 연속적인 배열등이 70년대보다는 많이 발생되었다. 대표적 건물이 국립진주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전이적 측면의 연속적인 전시공간과 복도에서의 연속적 배열과 단의 패턴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며 현대미술관의 경우는 수직적 구성에 의한 공간의 개방성, 폐쇄감에 의해 느껴지고 있다.

90년대 들어오면서 연속성은 전쟁기념관, 환기미술관

등에서 나타났다. 전쟁기념관의 경우는 외부광장으로부터의 호국관까지의 연속적인 공간의 흐름, 환기미술관은 환상형 계단을 통한 수직적 연속성 공간의 다양한 성격등에 의해 나타났다.

5. 중첩성

공간의 분화에 따라서 건물이 동과 동으로 구성되면서 축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축의 방향성등에 따라서 건물이 배치됨으로 정면에서 보이는 시각적 형태는 중첩되어 나왔다.

60, 70년대의 건축물은 단일 건물의 형태를 구성하기 때문에 중첩성의 효과가 단일건물에서 적게 나타난다.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는 형태적 위계적 패턴구성에 의한 건물에서 층층히 시각적인 중첩으로 나타나고, 국립공주박물관의 외부처마밑에 피로티로 처리하면서 내부벽면과의 시각적·중첩적인 효과를 발생하며 국립공주박물관·부산직할시립박물관은 외부기둥의 연속적인 배열을 통한 내부공간의 시각적 경험을 한다. 그리고 한국문예진흥원미술관 1층의 피로티를 통한 외부환경의 중첩적인 효과가 피로티를 통하여 발생되어진다.

80년대 건축물 중 국립진주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독립기념관등이 대표적으로 중첩적인 효과가 발생되며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진입부를 접근하다보면 북쪽 진입부에서 바라보면 완전한 수평적 구성이었던 것이 좀 더 접근 하면서 원통홀을 포개놓은 듯한 중첩적인 효과로 변하고 내부공간에서는 중첩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한다.. 진입부, 중앙홀, 전시관 입구에서 전이적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독립기념관의 경우 여러개의 분동관의 전시동이 기념관을 배경으로 분동형식으로 배치되면서 건물과 건물사이가 중첩되고 있고 내부공간에서 보여지고 있다.

90년대 들어오면서 건축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내·외부공간에서의 다양한 체험의 형식으로 발전해 왔다.

6. 대비성

천정, 벽체 그리고 바닥면은 3차원적 볼륨을 에워싸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서 대비성의 발생에 있어서도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벽체와 기둥에 의한 대비, 공간에 관입되는 기둥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대비는 압축과 팽창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공간적 흥미를 유발시키고 서로 대비가 되는 현상으로 향한 시선의

전이는 관찰자에게 시각의 명확성, 흥미의 유인을 가져오게 된다. 벽체와 천정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공간을 한정하며 기둥은 공간의 심리적인 측면을 한정하며 개구부는 공간의 외부와의 관련성 속에서 자연광을 도입하여 공간의 형태와 질감들에 인식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명확한 운동을 만들어 준다.

물리적 요소	상징성	위계성	개방성	장소성	연속성	의의성	중첩성	대비성	유기성	방향성	점투와관입	기타
건물명												
국립중앙박물관		●			●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부산과학시립박물관												
부여국립박물관(구)	●				●			●				●
은양민속박물관												
한국문예진흥원미술관												
호암미술관												
가인기념관												
정인미술관												
산림박물관												
광주민속박물관										●	●	
국립진주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							●				●
국립청주박물관	●		●	●	●	●		●	●			
기암미술관												
낙동강 승전기념관									●			
농업박물관												
독립기념관	●	●	●	●	●	●						
동대박물관												
목아박물관												
제주서귀포박물관												
세종대왕기념관												
소백산기념관	●		●			●						
신천지미술관												
서예관												
유군박물관												
인천상륙기념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토탈야의미술관										●		
동도사박물관												
화계박물관	●											
윤봉길의사기념관	●											
지학예술관			●									
경기도립박물관						●					●	
관덕정 순교기념관	●	●										
광주시립미술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		●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				●							●
국립중앙과학관		●						●				
부산시립박물관(신)	●	●	●	●			●					
봉곡박물관			●									
서울국립묘지기념관	●	●			●			●				●
서울시립박물관												
전재미술관												
송암미술관												
신안해저유물전시관												
이흥리박물관												
영산호농업박물관												
한기람미술관												
인천시립박물관	●	●	●	●	●	●		●		●		●
전재기념관	●	●	●	●	●	●		●		●		●
제주영화박물관												
경도농기구박물관						●	●					
경주고인쇄박물관										●	●	
토탈원템포러리미술관												
해강도자미술관						●			●			
환기미술관		●		●		●						
국립부여박물관	●	●	●	●				●	●	●	●	●

V. 결론

1. 위계성은 공간이 상승, 하강되어지면서 물리적 인자들이 한 개의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자들과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공간을 형성해 나간다. 예로서 환기미술관의 주전시관에서 상부로 상승할 때 계단의 의미는 벽, 천창과 같이 쓰여지고 있다. 위계성의 물리적 인자들은 벽, 기둥, 바닥, 계단에 나타나고 개방과 폐쇄성

· 연속성· 방향성의 심리적 인자 순으로 발생된다.

2. 개방과 폐쇄성에서 물리적 인자로서 벽, 바닥, 개구부(창, 문)에서 많이 나타나며 예로서 청주박물관의 경우 홀에서 중정으로 시각이 확대 되면서 바닥, 기둥, 창이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 심리적 인자가 전개되면서 연속성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영역성, 장소성, 방향성의 나타난다.

3. 영역성에서 공간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물리적 인자는 기둥, 바닥, 계단, 개구부(창), 천창의 순으로 나타나면서 인자들과 공간에 부합되면서 위요성과 개방 및 폐쇄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4. 연속성에서는 위계성과 마찬가지로 공간과정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간적 역할을 하는 인자는 바닥, 계단, 기둥, 벽(연속벽), 개구부(문)의 순으로 나타나며 그 인자들은 복합적인 관계로서 작용하며, 예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진입과정을 단면으로 해석할 때 그것은 바닥, 계단, 연속벽등의 인자들과 어울리면서 작용한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인자는 위계성과 방향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기타 인자들은 균등하게 발생된다.

5. 중첩성에서는 나타나는 인자는 기둥, 바닥, 계단, 벽(연속벽), 등의 순으로 공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자가 아니라, 공간의 일부분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자와 인자의 겹침·공간의 겹침을 통해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난다. 예로서 국립현대미술관 외부의 겹공간에서 나타나는 시각에서 중첩의 효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나타나는 심리적 인자인 연속성이 많이 나타나며, 개방과 폐쇄성·방향성, 위요성의 인자들의 순으로 고르게 나타난다.

6. 대비성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인자는 바닥, 계단, 개구부(문, 창), 벽(연속벽, 수직벽)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복합적인 인자로서 나타나는 것보다 동시대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그 예로 현대미술관의 로비에서 홀로 진입할 때 바닥의 연속성, 개구부의 크기에 따라 앞과 뒤의 대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중첩성과 같은 공간적 의미로서 개방과 폐쇄성·연속성이 많이 나타나며 기타 심리적 인자들도 고르게 발생된다.

7. 방향성에서는 연속성과 의미는 유사하지만, 단 앞의 공간을 암시·방향을 가리키는 시각적인 의미전달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공간과정에서 사용되는 물리적 인자는 기둥, 바닥, 계단, 벽(연속벽, 수직벽), 램프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 인자들은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공간

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심리적 인자들은 연속성·위계성·개방 및 폐쇄성의 순으로 나타나며 기타 인자들은 고르게 나타난다.

8. 침투와 관입·분절의 인자는 중첩성의 의미와 유사한 공간형태를 가진 것으로 물리적 인자로서 기둥, 계단, 벽(연속벽, 수직벽) 등의 인자로 사용되며 연속성, 방향성, 영역성 등의 순으로 깊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참 고 문 헌

1. Francis D.K.Ching, 전 감譯, 건축의 형태와 공간,국제출판공사,1985
2. Nathan B. Winters,이철원/김문덕 譯,디자인개념의 이해,기문당,1989
3. Rada Pyson-Hudsora and Eric Alden Smith, "Human Territoriality: An Ecological Reassessment", American Anthropologist. 1978. p 36-37.
4. Rudolf Arnheim, 손승광 譯, 건축의 역학적 형태,세진사,1987
5. 官川英二, 문석창 譯, 건축적 공간,기문당,1992
6. 도규환, 이재현, 건축물의 공간변화에 따른 전이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7. 3.
7. 도규환, 이재현, 박물관의 내·외부공간 변화를 통한 전이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5호, 1996. 5
8. 서상우, 현대 박물관 건축에 관한 계획학적 연구, 홍익대, 박사,88
9. 이재현, 한국전통건축 공간구성의 유기적 상호연계에 관한연구,한양대,박사,1988
10. 정무용, 한국전통건축 외부공간의 계층적 질서에 관한 연구,홍익대,박사.1984